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다음 주일은 졸업감사예배로 드립니다.
- 교육선교회 임시 이사회가 오후 1시 30분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 꾸러기학교, 멋쟁이학교 봄학기가 2일(월)~13일(금)까지 진행됩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졸업식이 다음 주일(8일) 3시에 있습니다.
- 지난 주 임미숙 집사, 임진숙 집사 어머니 (故 이진순 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 주보모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가정 예배와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김병우 · 정영옥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5 호

2026년 2월 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2026년 1월 J국 선교지 소식

살롬~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도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올 한해도 우리 삶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열방을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크신 삼위 일체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2026년 1월 선교지 소식 나눕니다.



1. 지난 12월 성탄절 블레싱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 교회들과 동역자들의 섬김으로 6지역의 67가정과 100명의 아이들에게 복음과 빵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에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2. 여러 이야기 중 두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움****드(왼쪽사진) 아주머니는 아직 믿음이 없으나 '누**' 지역의 가정들을 방문할 때 앞장서서 섬겨 주셨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A형제는 이슬람에 회의를 느끼던 중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족의 핍박을 피해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과 앞으로의 삶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지난 주일은 이곳으로 오기 전 8년을 섬겼던 예루살렘중앙교회 26주년 창립기념예배를 위해 요단강을 넘어 그리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전쟁의 땅에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며 든든히 세워지는 예루살렘중앙교회를 보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방에 세워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땅 끝 선교를 위한 예수복음의 통로로 잘 쓰임받길,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날마다 공급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새해에도 난민가정에서 공부방과 기도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민가정들은 연료비 부담으로 햇볕 드는 날이면 집 안보다 마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난민가정들이, 특히 아이들이 많이 아프지 않고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5. 2월 달에는 단기 선교팀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만남들 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위로하고 복음과 빵을 나누는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살롬살롬~

2026.1.27.(화)

임** 목사

사랑방의 공간 재구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최근 사랑방공동체의 공간들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은 자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학교 교무실과 과학실로 쓰이던 컨테이너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지 컨테이너도 위치를 바꾸었지요. 그러다보니 이 장소를 어떻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린이학교 교무실은 원래 정태일 목사님 서재로 쓰였다가, 멧쟁이학교 독서실, 교실, 교사방 등등 많은 용도 변화를 거쳐 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옮겼던 것이지만, 변화를 맞이하면서 과거의 추억들이 나오는 것은, 장소에 얽힌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작업을 하다보면 필히 손이 필요한데, 여러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참 가늠하지요. 방학시간을 더 즐기고 싶었을텐데, 1시간 일하기 위해 1시간 반을 걸려 찾아온 녀석도 있었습니다. 축구를 마치고 나서 찾아온 친구들도 있었지요. 일하면서도 웃고 떠들고, 컨테이너를 옮길 때엔 기억에 남겨야겠는지 사직도 찍더군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저기 위에 있는 가로 세로가 지어질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남학생 8명과 어른들이 모여서 똑딱똑딱 짓기 시작했지요. 중학생들이 얼마나 기여했겠느냐마는, 막상 지어지고 나서는 마치 우리가 다한 것 마냥 기뻐고, 어린이학교와 나눠쓴다는 말을 듣고선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후배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만들었어'라고 거들먹거렸지요. 아마 이 과정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도 그럴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이 공간들을 대할 때에, 불편함과 수고로움으로 응어리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365장, 436장

성 경 : 누가복음 10장 38~42절

말 씬 : 말씀 앞에 머물시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남아프리카 홍수 재난>

남아프리카 수재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구제 사역에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교회의 고령화>

고령화 사회에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교회가 돌봄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이윤희 권사님의 어깨 수술과 회복을 위해

2) 김정호 어르신 허리 골절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어린이들이 겨울특강으로 등교하면서 점심식사 시간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어린이들과 가르치는 선배 선생님들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식사가 더욱 맛있게 느껴집니다.

남자집사님들은 추운 날씨에도 교육관 2층 철거작업에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자녀들부터 학생들까지 많은 손길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조금 누그러진다니 다행이지만, 아무 탈 없이 모든 작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
<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95, 405 / 261

기도 :

성경 : 사무엘하 11장

제목 : 다윗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

1. 내용: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저질렀다. (What)

<문단구분>

1~5절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하다>

6~13절 <우리야의 충직함>

14~27절 <다윗이 죄를 덮으려고 흉계를 쓰다>

2. 의미: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였다. (Why)

1) 관계는 선을 지키는 것이다. 선을 넘을 때 관계가 깨어진다.

2)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았다.

3) 요압도 다윗의 뒤처리를 하며 공범이 되었다.

3. 적용: 언제나 겸손하라. (How)

1) 자만할 때 시험이 닥쳐온다.

2)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자.

3) 혼자 있을 때 주의하자.

겨울방학동안 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중에 하나는 따뜻한 방에서 보는 넷플릭스입니다. 바쁜 일과 중에는 종종 영화를 즐겨 보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한가할 때는 드라마나 시리즈들도 봅니다. 요즘 지인들을 만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흑백요리사2 봤어?’라고 대화의 주제가 흘러갑니다. 최근 한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요리경연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2를 저도 아주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저의 관전 포인트는 요리대결이라는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다양한 경력의 요리사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나가는가? 였습니다. 어떤 젊고 유망한 요리사는 자신은 1등을 하려고 왔다고 승리에 집중했고 다른 요리사는 자신은 전문 트레이닝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며 손을 덜덜 떨며 요리를 해나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요리사는 프랑스요리 1세대 셰프인 박효남 요리명장입니다. 제 나이보다 더 오랜 요리경력을 가지신 요리사들의 요리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차세대 요리사와의 1대1 요리대결을 맞이하며 이분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대면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요리를 준비한 차세대 요리사가 나를 넘어서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어른의 자세로 훌륭한 요리만이 아닌 차세대 요리사들을 세워나가는 여유로운 모습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직 한참 ‘젊은 나이’라는 40대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어리지 않은, 하지만 아직은 젊은 나이.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아직은 매끄럽지 못하고 종종 마음을 졸이며 대처해 나가는 익숙한 나를 바라봅니다. 원하는 결과물을 성취하는 것이 참 중요했던 저에게 올해는 여유로운 마음이라는 새해의 결심을 세웠습니다. 생각이 결심이 되고 이 결심이 행동이 되면 저의 60대도 진정한 어른의 모습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모두들 올해 어떤 다짐을 세우셨나요?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긴 방학이 끝을 보입니다. 추운 날씨는 그대로이지만 우리 꾸러기들은 가족들과의 아주 특별한 추억들을 새로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가족여행을 가고, 어떤 친구는 할아버지 댁에 내려가서 오랜 시간 보내기도 했답니다. 꾸러기들은 가정에서 방학을 보내지만 선생님들도 특별한 방학을 보냈습니다. 기대연 컨퍼런스도 참여하고, 졸업식을 위한 앨범작업도 하고, 꾸러기들과 함께 지낼 시간을 위한 준비도 했답니다. 2026년 꾸러기학교에서 다시 만날 꾸러기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 두근거리고 기대됩니다. 새해가 된 만큼 우리 아이들이 올해도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기도해주세요.

매년 1월 3째 주에 꾸러기동문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동문회가 있었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저녁에 선배들은 따로 좋은 시간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동문회가 졸업식보다 일찍 모이는 데 매년 졸업을 앞둔 예비 졸업자들도 참여합니다. 이번에 졸업을 앞둔 꾸러기 제일 큰 형과 누나도 동문회에 참석해 선배 동문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동문회 막내가 되어 아주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겨울방학 동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자고 일어나도 계속 방학인 상태.. 딱 이때에 방학특강이 있었다.

일주일의 시간동안 현 멋쟁이 선배님들이 강사의 주축이 되었고 일부

는 졸업생과 부모님도 계셨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어린이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흥분 그 자체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내용도 알찼다. 국 영 수는 기본이고 상송배우기에 즐거운 체육까지.. 또 하나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겐 아이돌만큼 예쁘고 잘생겨서 일주일 내내 꿈꾸듯 보내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이슈가 두 가지 더 있는데 어린이 교사방이 네모하나로 새동지를 틀었다. 또 하나는 편입학생들 가정과 만남의 자리가 있었는데 부모님들의 확고한 교육관에 존경을 표하고 싶고 새로 맞이할 친구들이 정말 귀엽고 기대만뺑이다. 올해도 화이팅!!!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겨울의 추운 바람도 언젠가는 따뜻해지듯이, 멋쟁이들도 이제 봄학기를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봄학기는 학교에서 약 2주간 검정고시 및 해외문화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기 위해 밀도 높은 학습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멋쟁이들은 공부에 대한 여러 노하우들을 깨닫게 되고, 자율학습에 대한 경험치를 쌓습니다. 평소 공부는 담쌓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는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이유인즉, 앞서 말한 '검정고시'와 '해외문화체험학습'이 전반기에 멋쟁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공통의 목표가 있다면, 무신경한 사람이라도 주변을 보며 자신을 점검하기 마련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봄학기도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비록 교육관 건축으로 평소와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었지만, 멋쟁이들은 잘 적응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 교사 : 이어진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43 : 3-4 인도자
32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148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고린도전서 1 : 18-25 설교자
86 그루터기사랑방
“ 십자가의 도를 걸으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341 다함께
인도자
288(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충환 최연우 / 봉헌위원 : 김중필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에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영광을 모두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십자가의 도를 걸으십시오

십자가의 말씀 말씀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로고스'를 말합니다. 철학자들은 우주의 보편 원리와 같은 이성적인 로고스를 말합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십자가의 로고스는 철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고린도의 문제 고린도교회는 사회 분위기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더 뛰어난 지식인을 따라서 그들의 팬이 되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자기 자랑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이 신앙의 미덕으로 둔갑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지위를 입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자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는 이 방법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정연갑 집사